

교수정년식 송별사

2010. 8. 31.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교정 전체가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에 둘러싸인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에서 35년의 역사를 쓰는 사이 가녀린 묘목들이 어느덧 아름드리나무로 자랐습니다. 저는 오늘 교정 곳곳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의 푸르디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계신 선배 교수님들을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께서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여름을 푸르고 무성하게 만든 한 그루 굵고 곧은 나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푸르기만 한,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푸르른 ‘학문의 높은 나무’ 이십니다. 그런 교수님들께서 만물이 푸른 이 계절에 정년을 맞으신다는 생각에 서울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후배 교수로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의 이면에, 그리고 아쉬움의 본질에 영예와 완성의 궤적을 향한 환희가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

모든 것을 바쳐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있게 해주신 교수님들의 헌신에 대해 교수와 교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학문과 교육의 긴 여정을 쉽 없이 꿋꿋하고 바르게 걸어오신 뒤에 명예롭게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이러한 영예의 이면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의 이해와 끊임없는 격려가 자리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 지금 이 자리가 태양력 상으로는 교수님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자리이나, 선생님들의 축적하신 지혜와 경륜은 결코 멈출 수 없고 지속적으로 번창해 나갈 것입니다. 교정의 아름드리 나무들처럼 교수님들은 이미 서울대학교의 소중한 아름다운 자산 그 자체이십니다. 선생님들의 진리탐구에 대한 정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교수

님들은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와 함께 하며 후학들의 귀감이 되실 것이고 서울대학교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실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척박했던 시절의 땀과 눈물이 서울대학교의 어려운 시절을 슬기롭게 극복해오고, 오늘의 서울대학교로 우뚝 솟게 만들어낸 동력원입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더 큰 결실의 계절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가까이에서 오래오래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나 서울대학교의 '현역' 명예교수로 남으셔서 저희 후배 교수들에게 현명한 조언과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않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일 이 교정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교수님들이 안 계신 서울대학교 강의실의 빈자리를 부족한 저희 후배 교수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채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선배님들이 공들여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영예로운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오 연 천

□ 정년 퇴임 인사말

경영학과 윤계섭 교수

존경하는 총장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그리고 동료 교수와 교수 가족 여러분.

40년 전 첫 강의를 마친 제 손에 가득하던 백묵 내음이 코끝에 완연한 데 어느덧 정년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기만 한 제가 정년퇴임을 하는 31명의 교수를 대표해서 퇴임의 소회를 밝히게 됐습니다. 무한한 영광입니다.

연단에 서자니 새삼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100년 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 하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휘날렸습니다. 60년 전 오늘에도 서울 하늘에는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출범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은 공산 치하에 놓였었습니다. 치욕과 좌절 그리고 실패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짊어져야 할 형극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8월 31일 오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경제는 국민 총생산 기준 세계 15위의 중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조경제의 멍을 벗어 던지고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발전의 한편에서는 정치발전을 이뤘습니다. 한때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자유와 권리를 만끽하게 됐을 뿐 아니라 1987년 이래 다섯 차례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데는 정부와 기업, 행정과 산업 현장에서 젊음을 불사른 우리 졸업생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민주화への 기여도는 교정을 수놓고 있는 크고 작은 추모비들이 웅변하는 바와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퇴임교수들은 본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에 일조한 보석과도 같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을 크나 큰 축복이자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자족과 자축의 자리일 수만은 없습니다. 군자 3락 중 하나라고 하는 영재 교육의 즐거움을 반추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기에는 대한민국과 서울대학교의 전도에 놓인 도전이 엄중합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 강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는 도약이나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민주화 13년, 우리 사회에서는 흑세무민과 중우정 치만 판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질지도 모르는 통일은 우리에게 큰 기회 못지않게 시련을 안겨줄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는 시구가 가슴에 와 닿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룩해 낸 기적과도 같은 영웅 서사시의 제 2막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초우량 경제로의 도약과 성숙한 민주사회 건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감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계 일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식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못지 않게 "가치 공동체"를 일궈 내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영혼 없는 엘리트 양성소가 아니라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갖춘 나라와 세계를 위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리더 양성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단견과 몰이해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에 직면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 극복할 수 없을 듯 보였던 역경을 딛고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목표들을 달성해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역 교수와 직원들과 재학생들은 물론 이 자리를 함께 한 서울대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퇴임 교수들도 남은 여생을 서울대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에 첫 발을 내디딘 뒤 지금 이 순간까지 서울대학교는 저희들에게 가슴 벅차도록 자랑스러운 모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으뜸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과 은사님,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떠나는 저희들을 위해서 사범대학의 우한용 교수께서 긴 시를 보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 소절을 읽어 드립니다.

그대들 긴 긴 강물

오늘에사

거품도 걷히고 흙탕도 가라앉아

왕양한 큰 바다에 다다라 가리니

노을과 더불어 찡찡한 메아리 벗어나

민족과 세계를 감싸 안고 창조의 시원으로 흘러라

대단히 감사합니다.